

## 설교와 조직 신학

Donald Macleod

번역 : 남현우

“선포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 없는 선포는 맹목이다.”<sup>1)</sup>라고 Gerhard Ebeling은 썼는데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사실 그러하다—신학과 설교간의 관계는 긴밀한 것이다. 신학적 과정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선포안에서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형물이거나 사생물이다. 관점을 바꾸어서 만약 우리의 신학(혹은 그 안의 어떤 세부 항목)이 선포될 수 없다면 그것이 신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도무지 의심스럽다. James Denney는 실제로 “사람이 설교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sup>2)</sup>고 말했을 때 옳았다. 참된 신학은 명료성을 추구하며 교회의 예배에서의 위치를 주장하며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행할 권리를 주장한다. 만약 신학이 침묵하는 것이나 학문의 숲에 감금되는 것에 만족한다면 신학은 그 예언적 특성과 함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신학이 설교에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동등하게 참되다. 신학이 없다면 적어도 신약적 의미에서는 설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이다. 설교가 방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은 논쟁할 만 하다. 잘못선포된 올바른 메시지는 잘 선포된 잘못된 메시지보다 더 좋은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기능을 알았다. 그는 사실들을 선포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러한 사실들의 의미도 선포해야만 했다.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들은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다.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으로서 그리고 그의 신적 아들

됨과 구주되심의 증명으로서 해석되었을 때 그 사실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바울은 설교자의 역할을 고후 5:20에서 더 엄격하게 신학적 용어로서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리는 임무가 주어졌다. 설교자가 그 메시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전혀 비 이단적이면서도 동시에 설교자의 위임에 전혀 불신실하기는 아주 가능성이 있다. 위대한 신학적, 기독교적, 구원론적인 주제들이 앞에서 분명하게 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란 없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이다”라고 B.B. Warfield는 기록했다. “결국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설교자의 최상의 업무이다. 따라서 그 자신이 이 진리에 사로 잡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그의 근본적인 의무이다.”<sup>3)</sup>

우리는 조직 신학의 훌륭한 요약적 정의를 위해서 Warfield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조직적인 형태로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진리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sup>4)</sup> 그것은 성경 신학이 각자 계승되는 계시의 시기에 의해서 우리가 위대한 교리들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분명한 공헌에 관계하여 발견한 것을 이용한다. 조직 신학은 또한 역사 신학이 이전 세대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취해진 도전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에 의하여 공헌된 것들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성경 신학이나 역사 신학보다 더 포괄적이다. 조직 신학은 전체적으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견해 즉, 모든 관계 있는 성경 구절과 학적이고 논쟁적인 토론에 의해 이루어진 공헌들을 비교한 견해를 추구한다. 조직신학은 그 자체 학문들이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이고 표준적이다. 조직 신학은 구약성경 가운데 전통적인 것이나 행위성보다 더 궁극적인 성경의 견해를 추구한다. 이와 유사하게 조직 신학은 교부들과 이단들의 견해들을 묘사할 뿐 아니라 (역사 신학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신앙의 규칙의 조명안에서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직 신학은 4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신학은 논제적이다. 조직 신학의 관심은 특별한 본문이거나 특별한 책이거나 혹은 저자나 인물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의 교리적인 논제들에 있다.

\* *The Preacher and Preaching*, ed. Samuel T. Loga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New Jersey.)의 제 9 장을 번역한 것임.

1) Gerhard Ebling, *Theology and Proclamation*(London:Wm. Collins Son and Co., 1966), p.20.

2) Alexander Gammie, *Preachers I Have Heard*(London:Pickering and Inglis, n.d.), p.163에 인용되어 있음.

3) B.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Vol.2, ed. John E. Meeter(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Peforned, 1973), p.180.

4) *Ibid.*, p.281.

둘째, 조직신학은 포괄적이다. 조직 신학은 성경과 역사 신학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려낸다.

세째, 조직 신학은 표준적이다. 조직 신학은 특별한 성경 저자가 생각한 것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믿는 바 혹은 교회가 받아들여도록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결론을 다룬다.

네째, 조직 신학은 조직적이다. 조직 신학은 그 주제들을 가장 가능한 순서로 정돈하고 개인적인 교리들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분석하고 종합하며 그것들을 가능한 한 조리 있고 수궁이 되도록 교회와 세상, 둘다의 삶에 연관시키려고 한다.

### 조직신학과 주석

설교 사역의 연구에서 이런 종류의 연관에 도달하면 우리가 묻게되는 첫 번째 질문은 특별한 본문의 주석과 조직 신학의 전체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답은 각각의 본문은 제시된 진리의 전체 체계의 조명안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진리의 체계는 각각의 본문을 명백히 밝혀낸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신앙의 유추가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해석의 무오적인 규칙은 성경 자체가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구절들에 의해 조사되어지고 알려워져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9항).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엡 5:18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령한 것을 보자. 이것은 해설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자의 성령에 대한 관계의 전체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즉 그것들은 (1)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다(행 2:4, 고전 12:13), (2) 신자들은 반복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행 2:4, 4:8참조), (3) 주께서는 모든 비상사태에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눅 12:12), (4)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5)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다(행 6:5). 우리가 전체적인 교리를 그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엡 5:18을 아마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

동일한 것이 다른 많은 점들에 있어서도 참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전체 교리를 그려낼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본문은 양자됨의 전체 교리를 그려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만군의 주여!"라고 한 본문은 신적인 기록성의 전체 교리를 그려 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

한다. 그런 모든 예들에서 성경이 특별한 주제위에서 말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단일한 구절 위에서 취급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해설이 선행한다(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한 모든 것 즉, 예를 들어서 신적인 기록성 등을 말한 어떤 개인적인 본문으로부터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가장 연관이 있는 일면들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로 교리체계는 특별한 구절의 해석에 대하여 통제를 행한다. 분명히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의학은 우리의 주석이 결코 침해 할 수 없는 매개 변수를 규정한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시 6:5을 예로 들어 보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이까." 이것(혹은 유사 구절들)에 대한 어떤 해설도 영혼의 불멸성의 교리를 반대하거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가 의식적인 상태의 어떤 것이라고 제안할 수 없다. 조직 신학은 요 3:5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는 것과 같은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해설에 유사한 통제를 행사한다. 선택적인 중생의 어떤 제안도 직접적으로 나머지 성경이 구원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 버려질 수 없다. 동일한 원리가 고후 5:21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의 교리를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대속적인 속죄가 어떤 도덕적, 영적 오염에 있어서 주님을 포함시켰다는 사상을 실추시킨다. "죄를 삼았다"는 것은 "죄로 가득하게 했다"가 될 수는 없다.

기독론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다른 구절은 골로새서 1:15절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교회가 이러한 논쟁에서 배운 모든 것은 구주의 선재성이나 신성(창조주되심)을 손상 시키는 어떤 주석도 우리가 관용하도록 강요한다. 마지막 예로서 우리는 악명 높은 난점인 히 16:4이하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을 취할 수 있다. 일견한 바로는 이 구절은 참된 신자가 배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교의학은 그와 같은 해석은 지지할 수 없으며 그 구절 자체를 깊이 조사해 보면 그것은 다른 교리들, 즉 현재의 신앙교리와 함께한 방향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좀 더 주의깊게 모든 본문은 제시된 진리의 전체 체계의 조명안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은 또한 세번째 원리를 포함한다. 즉 우리는 교리를 또 하나

의 구절위에서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다리로 걸상을 균형잡는 것과 같다”<sup>5)</sup>고 A.A. Hodge는 말했다.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에 참여케 하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것은 종종 잊혀져 왔는데 특별히 종말론에 관계해서 그렇다. 사람들은 휴거의 교리 즉, 첫번째와 두번째 부활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년왕국의 교리를 실제적으로 한 구절(살전 4:17, 계 20:4, 20:5) 위애다가 세웠다. 이러한 교리들은 그것들이 성경의 전반적인 견해를 반대한다는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의 빈약한 본문적 기초는 직접적으로 그것들에게 혐의를 전가한다.

그러나 조직 신학은 주석가와 해설자에게는 어떤 위험스러운 것들을 창조한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체계의 관심안에서 특별한 본문의 교리를 억압하고 깔보려는 유혹이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적 선택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잘못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요 3:16과 딤후 2:4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에 정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고 잘못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빌 2:12), 우리 자신의 의복을 빼는 일(계 7:14),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하는 것(요일 3:3)에 대한 강조를 극소화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결정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마치 못해 하는 것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정된 바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어떤 복음주의자들의 연극에 대한 합법적인 혐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의 필요를 주장함에 있어서 실패할 지도 모른다. 지금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지극이다. 내일이나 가까운 미래가 아니다. 오순절의 3000명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정과 세계에도 이끌림을 받은 것이다.

그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영역들에도 존재하고 있다. 신약은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많은 경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에 대한 관심으로 병어리가 되어선 안된다. 사실 이러한 경고들은 엄격히 적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배교가 태어나는 자기만족과 부주의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칭의의 교리에 관계해서 동등하게 두려워하고 있다(그리고 동등하게 불

신실하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복음의 기초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청취자들이 마 7:21의 메시지 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의 모든 삶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험악한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사실과 씨름하여야 한다.

두번째 위험은 첫번째 위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게 하기보다 우리는 때때로 본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학파가 선호하는 어떤 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이려는 변증적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요 3:16과 같은 구절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다. 너무 많은 설교들이 설교자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약정한다는 인상을 준다. 자아부인과 너그러움과 방종의 영광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다른 구절들과 다른 교리들도 고난을 다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없이 복음을 자유로이 제공하는 것은 설교자가 대신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제공이 하나님의 주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병어리가 되고 움츠러든다. 칭의의 무료성은 우리가 성화의 명령의 일관성을 보여 주려고 우리의 힘을 소비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 시키게 될 때 흐려지게 된다. 심판과 지옥의 단호한 실재성은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논쟁적으로 주장할 때 잊혀진다.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범죄하지 않는다(요일 3:9)고 선언하는 본문을 만나고 그의 힘을 그것이 사실 그러하다는 것을 보이는데 소비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의 변칙성과 가공성에 대한 본문의 주장은 잊혀진다.

그러한 모든 예들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는 실로 이것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본문의 실제적인 메시지를 결정된 후에(조직 신학) 우리는 본문이 그 자체의 진리를 말하게 해야 한다. 모든 필요한 조화 즉, 모든 불균형을 수정하는 것은 진리의 다른 단면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교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어질 때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다른 위험성이 언급될 가치가 있다. 하나의 교리가 하나의 본문에 놓여져 있을 때 조직 신학이 이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한 설교 안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유혹적인 것이다. 이것은 거의 항상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본문 자체에 의하여 제시된 교리에 관계된 두 세 개의 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흩어지고 생명력이 없어질 것이다(순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조차 수사학적인 힘

5) C.A. Salmond, *Princetoniana: Charles and A.A. Hodge With Class and Table Talk of Hodge the Younger* (Edinburgh: Oliphant, Anderson, and Ferrier, 1888), p. 167에 인용되어 있음

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자료와 매개체의 구속성과 제한성이며, Glen Knecht는 다음장(The Preach and Preaching의 10장—역자주)주의 깊게 좇점이 맞추어진 설교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John A. Broadus는 “경험하지 못한 말하는 자와 쓰는 자들이 말하기에 충분하도록 발견했다고 확신하기 위하여 가장 잘 취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환상이다. 그러나 훌륭한 주제의 어떠한 단면을 선택하는 것은 대개 말하는 자는 신선한 어떤 것을 수행하기에 더 좋은 기회를 듣는 자는 그 주제 안에서 전체적으로 활기있는 관심을 취하게 하는 더 나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것이다”<sup>6)</sup>고 말하고 있다. Broadus가 인용한 Alexander는 그 원리를 간결하게 “주제를 더 좁게 할수록 더 많은 사상을 가질 것이다”<sup>7)</sup>고 진술한다. 더 기본적으로 그럼으로써 더 분명하게 제시된 교리일수록 이 법칙을 관찰하기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론 전체를 혹은 창의를론 전체를 한 설교안에 억지로 채워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점으로 제한시켜야 하며 우리의 특별한 본문을 강조해야 한다.

고전적인 예의 위험성은 히 2:3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라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Barth와 Berkower를 합한 교의학 만큼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으나 여전히 구원의 위대성을 충분히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문맥에다가 한정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이 위대한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에 따라서 그것이 권위 있는 계시와(1:1), 죄의 완전한 씻음(1:3)과, 능력있는 살아계신 지도자(1:3)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맥을 벗어나는 것은 설교학적인 재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 설교의 구성

조직 신학이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교의학이 우리의 설교의 구조를 결정하도록 하지 못해서 허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문 자체는 정상적으로 주제만이 아니라 설교의 결정도 제공할 것이다(Glen Knecht의 이에 대한 비평을 보라).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 가르침의 계속되는 국면들을 지날때

반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맥과 본문의 삶의 정황은 본문의 교리가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를 거의 항상 보여 줄 것이다. 본문을 성경의 실존적 상황으로부터 떼어내 버리고 대신에 단순히 문자적인 형태의 동력(두운법)이나 교의학의 동력을 그 위에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설교의 생명력과 연관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설자의 역할을 내동맹이 치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교리들에 뿐 아니라 이것의 기초가 되는 목회적 관점에도 충실해야만 한다. 빌 2:5-11을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론을 설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모든 강박관념을 끝내기 위하여 변론하는 것이다. 고후 8:9을 설교하는 것은 성육신의 이적을 선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봉사에 대한 성경적 신학을 놓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19이하를 설교하는 것은 최종적인 성화의 교리를 선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긴밀한 가능한 방식으로 은혜에 의한 칭의의 교리가 죄에 대하여 담대함을 준다는 책임에 관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교리적인 점 뿐만 아니라 설교의 외형과 적용도 본문 자체로부터 발생된다.

비조직적인 동양적 지성의 본질에 대해서 한 것과 같이 종종 말해진 것에도 불구하고 조직 신학의 범주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구분된 몇몇 본문들이 있다. 예를들면, 빌립보서 2:5이하의 메시지의 교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구분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선재성, (2) 낮아지신 그리스도, (3) 승천하신 그리스도, 요 3:1이하에 대한 설교는 교의학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 중생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절들 자체에 의하여 세워진 한계 안에서 (1) 저자/중생의 대리인, (2) 중생의 본질, (3) 중생의 결과, (4) 중생의 필요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조직 신학의 외형들은 본문 자체의 외형과 일치한다. 칭의에 대한 커다란 성경적 진술가운데 하나인 롬 3:24-25의 구절 역시 동일하게 참되다. 그것은 (1) 칭의의 의미, (2) 칭의의 원천(은혜), (3) 칭의의 근거(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4) 칭의의 수단(믿음 만으로)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 변수들 안에 한정된다면 이것들은 설교하기에 쉬운 설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너무 배타적으로 교훈적이다. 어떤 균형을 이루는 실제적인 관점을 찾는 것은(성경 문맥 안에서) 가르침이 필요성이나 흥미나 문제나 의심, 혹은 모임에 대한 무관심에 일정하게 관계되어 있게 하기 위하여 절박하다.

다른 경우에서 조직 신학은 우리 설교의 작은 표제(종속적 외형)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행 16:31에 대한 설교는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가장 가까운 가능한 방식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재료의 이 부분을 중보적 사역의 세 단계의

6) J.A. Broadus, *A Treatise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London: James Nisbet and Co., 1874), p.90.

7) *Ibid.*,

구분 주변에 조성할 수 있다. 즉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우리의 지성을 그에게 복종시킵),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우리의 죄를 그에게 가져옴),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그의 주되심과 지도자되심을 받아들임)이 그것이다. 설교의 나머지는 “너희들은 구원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해설에 바쳐질 수 있다.

유사한 접근이 구분 가운데 하나가 회개의 본질이라는 설교에서 취해질 수 있다(예를 들면,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대한 부분은 교의학으로부터 아주 잘 빌어올 수 있고 그것을 (1) 마음의 변화, (2) 풍조의 변화, 그리고 (3) 방향의 변화로 해설할 수 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있어서 설교와 신학적 강의 사이에(언어가 아닌 내용에서) 똑같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만약에 창 1:26의 기초위에서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설하려고 할 때 참될 것이다. 설교자는 조직 신학이 주제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을 풍부하고 조심스럽게 그려내야 할 것이다. 설교자는 도덕적 형상(잃어버림)과 자연적 형상(인간 본질의 절대 필수적이고 떼어낼 수 없는 사실임)사이를 구분하는 이중의 형상의 사상을 사용 하는 데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행동의 대상은 학문적이 아니라 설교학적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적용은 마음에 분명하게 간직되어야 한다. 형상의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살인자의 죄에 대한 중압감이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죄의 중압감인 것이다.

### 체계의 망라

설교자는 조직 신학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매년 망라해야 하는가? 적어도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마음에 세 가지의 원칙을 간직해야만 한다.

첫째,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책임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첫번째 관심이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체계를 망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쉰어진 계시를 포괄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침에는 창 1:1로, 저녁에는 마 1:1로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적어도)현학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분할에서 우리가 가로지르는 것은 성경이다. 즉 구약과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들, 역사서와 교훈서, 윤리서과 교리서, 경험서와 신학서인 것이다. 이것은 균형을 이룬 식이요법을 비축하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선포하도록 방향이 맞추어졌다. 이것은 교리 이상, 적어도 엄격한 의미에서 조직 신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든” 교리들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성경 해설이 우리 방식은 그에 대한 주의깊은 설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셋째로, 우리는 성격적 비율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유혹은 항상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종파적이고 부분적인 독특성에 관하여 너무 자주 설교하고자 존재한다.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와 관계하여—그리고 그 부속물인 예징과 선택—우리는 Charles Hodge의 지혜로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교리의 성격의 모든 다른 교리들에 대한 관계는 화강암 기초가 지구의 다른 지층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같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기초가 되며 그것들을 받쳐 준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저기에서만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교리는 이 무리의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며 지금 그리고 그 때만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sup>8)</sup> 이 “지금 그리고 그 때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기본적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일부 독특성에 더 강하게 적용한다. 어떤 설교자도 그의 확신이 있어도 천년왕국, 휴거, 안식일, 십일조, 유아세례, 혹은 지옥의 교리에 대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뇌일 권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것들을 설교하기에는 거의 충분하지 못한 어떤 교리들이 있다. 성경적인 비율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어떤 예들에서는 모든 주일마다 망라하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 이것은 주목할 만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에서는 참되다. 그의 신성은 신약의 모든 페이지마다 서있다. 그것은 기독교 왕국의 나누어지지 않은 동의를 명령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의 기초이며 전제이다. 결국 교회는 그것에 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Edmund Clowney는 이 사실을 그의 저작가운데 좀 길게 일찌기 논의하고 있다.

거의 중요하지 않은 다른 교리들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칭의에 대해서 Luther는 그것이 “새움받은 교회 혹은 타락한 교회의 기사”라고 말했다. 용서의 교리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전 2:2)라고 말했다. 사랑의 은혜에 대하여 동일 사도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파리”라고 말했다. 그러한 진

8) Charles Hodge, *Princeton Sermons*(Edinburgh:Banner of Truth, 1979), p.6.

술들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교리들이 신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설교에서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는가?

분명하게 모든 설교자들은 신학적 비율에 대한 감각을 필요로 한다. 모든 제시된 교리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기본적이고 우선적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적어도 네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기준이 있다.

첫째로 “구원을 위해서 알려지고, 믿어지고, 관찰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1:7), 신앙 고백이 이것들을 정의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범주로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교리들을 들어보지 않고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롬 10:11).

둘째로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1장 7절)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는데 어떤 교리들은 “성경의 이런 저런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출되고 개방되어 있다는 것, 즉 확신이 있는 자나 없는자나 평범한 수단의 적당한 사용으로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준은 계시의 충족성이다. 진리의 어떤 일면들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그것들을 감싸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평이성은 그것들의 우선적인 중요성에 대한 증명이다.

셋째로, 그리고 분명성의 요소에 밀접하게 관련해서 John Stott에 의해서 놓여진 원칙이 있는데 한결같이 독실하고, 한결같이 겸손하고, 한결같이 성경을 믿으며 성경 공부를 하는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어떤 주제도 첫번째가 아니라 부차적으로,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주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up>9)</sup>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적게 빛을 비추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르게 보게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천년 왕국, 속죄의 범위, 유아세례, 교회질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그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의 상대적인 비중요성이 되는 점허와 자비와 감소함을 가지고 해야한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교리가 근본적인 아주 분명한 안 내를 한다는 것이다. 목록은 놀랄 정도로 길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구약의 중심적인 확언을 가지고 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신 6:4).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첫째 것”에 대한 것으로서 바울의 진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다시 살아나사”(고전 15:3이하). 사도의 견해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속죄와 부활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교리이다. 골로새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에서 핵심적 요소인 그리스도의 주되심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거꾸로 사도요한은 그리스도의 참되신 인성의 교리를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선언한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일 4:2이하).

그와같이 계속해 볼 수 있다. 갈 1:8이하에 따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칭의의 교리만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고전 15:19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근본적이다. 요 3:1-15에 따르면 새로운 탄생이 근본적이다. 고전 13장에 따르면 사랑이 근본적이다. 주일과 사도들의 설교의 많은 회상적인 요약에 따르면 믿음과 회개가 근본적이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성경 신학적 관점(특히 “언약”의 개념)에 따르면 성령으로의 세례에 의한 시초가 근본적이다.

성경적 비율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은 반복과 이 모든 교리들에 대한 강조의 무게에 의하여 독특함을 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는 우리의 특별한 목회적 상황으로 어떤 요소들을 복잡하게 한다. 예를 들면 논쟁이 있다. 우리는 어떤 교리들이 반대를 받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것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균형적인 강조가 되는 것에 호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리우스와의 싸움에서의 아타나시우스, 펠라기우스 논쟁과 도나티스트 논쟁 동안의 어거스틴, 종교개혁 때의 루터에게는 참되다. 우리는 교회가 아직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그리고 항상 그럴 것이기 때문에)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성도의 견인과 같은 단일교리에 대항하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운동이나 율법주의나 완전주의나 도덕을 폐지론이나 선동일 것이다. 그와 같은 때에 논쟁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교리에게 중요성을 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신학적 연약성과 불균형을 겪은 최중을 물려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것들이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제외한 것에 교리를 물려주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동안 설교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산상설교와 야고보서의 강조점들에 다른 부적당한 독특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회집들은 그러나 그것들의 회의로부터 신학을 완전히 제한 것이 아니라면(많은 경우에는 참된 것이지만), 적어도 어떤 교리들이 없기 때문에 마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보인다.

9) John R. Stott, *Christ the Confrontationalist*(Downers Grove:Inter-Varsity Press, 1970), p.44.

John Murray교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 기독교인의 소명에 대한 요구, 그리고 끊임없는 자아 시험같은 교리들은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설교로부터 제외당하고 있고 다시 앎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10)</sup> 특별한 상황에서 복음의 무료 제공은 오랜 해 동안 소홀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과 함께 바르트 신학의 과장된 단일행동주의(Monergism)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이다. 신앙과 회개에서 인간의 응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기보다는 구원받은 것을 믿을 것을 요구받는다. 더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과대 복음주의와 특별히 “결정론”을 우려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은혜 계약의 좌우동형의 본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더 분명히 정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즉, 생명에의 회개를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신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요구하신다”(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5문답).

우리 설교의 신학적인 균형을 취해야 하는 다른 요소는 우리 회중의 성숙도나 다른 것들이다. 만약 우리가 포괄적인 신학지식으로 잘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강한 교리적인 음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회중은 덜 교육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였고 활동적이며 열심히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하다. 많은 교회들은 히 5:12에 묘사된 상황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것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한 백성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나 기독교 경험의 복잡성이 아니라 기초가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죄와 구원에 관한 기초적인 교리들을 적당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체계는 명확해야 하는가?

조직 신학의 제시는 회중에게 명확해야 하는가?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다. James Stewart는 “비록 사람들의 머리에 설교하는 것이 나쁘지만 그

들의 머리에 전혀 설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sup>11)</sup>고 썼다. 우리는 교사들이다. 가르치는 것(Didache)은 우리의 업무이며, 우리의 설교는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신학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복음주의에 있어서 조차—만약 정말로 특별하지 않다면—참되다. 성경적으로 비신학적인 복음주의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창 3:15의 원시 복음(Protevangelio)은 풍부하게 교리적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가? 그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 창 17:7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주어진 은혜계약의 초기 계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복음주의란 우리의 잃어버린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동일한 복음주의 신학적 특성이 신학에서 뚜렷하다. Samuel Logan이 이 책(*The Preacher and Preaching*을 말함)의 앞에서 상기시키는 대로 우리 주님의 설교는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다. 그에 대한 어떤 신실한 설명도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는 오순절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덴에서, 그 모든 것은 신학적이다. 고전 1:18에서 바울은 그의 기본적 메시지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정의한다. 고전 15:3이하에서는 복음주의 전통의 기본적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정의한다. 고후 5:18이하에서는 화해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진술을 해설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요한의 복음의 요약은 그 심오성에 있어서 더 위협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성경에서 정의된 대로 복음주의는 지성을 위한 싸움이다. 그것의 본질은 진리의 확신과 해설이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말을 반복하는 것,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며 그 분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헛수고이다.”라고 William M. Taylor는 썼다. “그것은 어떤 신비 철학이거나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며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히 공허한 문구

10) John Murray, “Some Necessary Emphases in Preaching”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1(Edinburgh:Banner of Truth, 1976).

11) James Stewart, *Heralds of God*(London:Hodder and Stoughton, 1946), p.152.

로 낮추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이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의 죽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 그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sup>12)</sup>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는 가장 연약한 시도를 하는 것은 신학에 종사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신학적 설교는 목회적 보살핌의 첫번째 수단이다. 양떼들은 먹여져야 한다. 사실 목사는 이단으로 뿐 아니라 기아로도 그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리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요 17:17). 관점을 바꿔서 그들은 하나님의 감옥이 본질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엡 4:14). 교리는 경험에 대항하며 세워질 수 없다. Charler Bridges는 "기독교 경험은 감정에 대한 교리적인 진리의 영향이다"<sup>13)</sup>라고 썼다. 그것은 Samuel Logan이 앞 부분 (The preacher and preaching의 전반부를 말함, 역자 주)에서 상기시킨 바대로 Janathan Edwards도 강하게 한 점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가자들이 경험과 실제의 영역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기독교 교리에 호소했던 이유이다. 예를 들어 요 14:1에서 예수님이 단념하도록 설득한 것을 보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권면은 완전히 신학적인 기초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니라. 결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묘사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초, 즉 "나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접근을 신약 전체를 통하여 자주 발견한다. 고후 8:9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해설은 성육신에 대한 호소에서 끝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만난다. 거기에는 싸움과 허망함과 교만과 애처로움이 있었다. 대답은 다시 그 모든 상황을 성육신의 빛에 놓는 것이다. 이 마음을 너희 속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종의 형체 즉, 사람의 형상과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취하심으로써 자기를 비우신 분이시다.

12) William M. Taylor, *The Ministry of the Word* (London: T. Nelson and Sons, 1876), p.83.

13) Charles Bridges, *The Christian Ministr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1), p. 259.

신약의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을 따른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증하는 배교와 부딪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붙어있을 것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위대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학적 사실에 그의 변호를 기초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위대하며 그 분이 장막을 뚫고 가셨기 때문에 위대하며 그 분이 우리의 허약함을 느끼실 수 있었기에 위대하신 것이다. (히 4:14). 유사하게 사도요한은 (그리고 그후에 부활하신 주님) 많은 신자들이 7개의 인에서 암시된 재난을 이미 경험한 것을 의미 하고서 보좌와 그위에 앉으신 분의 환상 (계 4:2)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계시를 시작했다. 뒤따르는 모든 것은 동시에 존엄하신 주님이시며 죽임을 당하신 양이신 그 분의 주권의 빛을 보여야 한다.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거꾸로 주장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학문과 신학대학을 위하여 계획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설교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가 없다. 만약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가 없다. 우리는 비록 그것들이 우리를 내던져버린다 해도 위대한 주제들과 씨름을 해야 한다. 우리는 높이와 깊이와 복잡성을 본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의 승무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신비적이라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뒤에 버려 둔다면 부조리한 변종이 될 것이다. "탁월한 동기를 가장 작은 의무로, 그리고 가장 무한한 위안을 가장 작은 근심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있어서 두려워 말라."고 Phillips Brook는 말했다.

신약에서 주어진 방식은 뒤따르는 세기들의 위대한 설교자들에 의하여 분명하게 연속되어졌다. 그들의 선언은 신학이 부족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설교들은 여전히 교리학도를 위해서는 귀중한 발굴물들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 자체를 떠나서 신학자들의 가장 좋은 출처는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학적인 작품이다.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아리우스를 대항한 연설" (Orations Against the Arians)를 설교했다. 어거스틴은 사람과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의 견해를 설교했다. 루터와 칼빈은 믿음에 의한 칭의, 의지의 속박,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했다. Gould가 편집한 John Owen의 작품집 16권에서 가장 좋은 2개의 책은 설교이다. Edward는 그의 설교를 교리로 채워 넣었다. Wesley의 설교는 감리교의 실제적인 신학적 기준이 되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설교와 신학적 설교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계시에서 주어진 신학은—우리가 교수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신학을 스스로 선포케



하라—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학을 설교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있다. 신학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진 방식으로 강단에서 가르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학은 동일하다.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세개의 특별한 함정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강단에서 전문용어를 피해야 한다. 신학은 학술토론을 위해 충분히 적절한 그 자신의 기술적인 술어가 있다. 그러나 공적인 선포에서 사용될 때 이해에 장벽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술어 가운데 많은 것(예를 들면 칭의, 예정, 중생, 회개)들은 성경에서 바로 취해진다. 그리고 그와같이 해서 방임되어진다. 그러나 목사가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등과 같은 단어들도 동일하다. 그것들은 교회의 신앙 고백 전통에서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의 언어를 강단에 이끌어 들임에 대해서 아주 주저해야 한다. 신학교에서 새롭게 배출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관례들의 술어가 어떻게 특수화되는지를 전제적으로 모르는 것이 치명적으로 쉬운 일이다. 존재론, 해석학, 종말론, 그리고 실존주의 등과 같은 말들은 학술적인 연설에서는 매일 있지만 그것은 바깥세상에는 엄청난 미신적인 주술이다.

두번째 함정은 인용구를 가지고 설교에 후추를 치려는 유혹이다. 이것들은 학문적인 강화에서는 유용하고 필요하기조차 할 것이다. 강단에서는 인용구들은 거의 적절하지 않다. 그것들은 학문의 불필요한 전시를 구성하며, 그 형태는 말해진 말씀의 형태와 일치되지 않으며, 그것들은 메시지의 계기를 방해한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들은 웨스트 민스터 총회가 “하나님에 대한 공적 예배를 위한 사전”(Dictiona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을 편집할 때 우리가 검토하게만 “고대이건 현대이건 설득력이 있는 교회와 다른 민간 저자들의 문장들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이끌었다. 금언의 능란한 사용은 아직 효과적일 수 있으나 늘어진 인용구는 단지 혼란일 뿐이다.

피해야 할 세번째의 것은 주제를 소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이것은 학술 강론에서는 완전히 적절하다. 여기에서 모든 가능한 진리의 국면이 그려질 수 있으며 모든 효과적인 논쟁이 정돈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반대가 대답될 수 있다. 강단에서는 그러한 순서가 전적으로 부적당하다. 우스꽝스러움을 무릅쓰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의 4개가 충분하다고 제안할 것이다. 그것을 떠나서 듣는 사람은 종종 고갈되었고 잃어버렸다.

Thomas Chalmers는 신학이 신학교에서 취급되는 방식과 강단에서 취급되어야 할 방법 사이에 두개의 더 진전된 중요한 무관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로, 강단에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 언급이 교리를 권고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목표는 학술적인 해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이다. Chalmers는 “기독교 계시는 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시작한다.”고 썼다. ‘믿어야 할 것’(Credenda)은 착륙 장소가 아니라 ‘행해야 할 것’(agenda)에로의 이륙대이다”<sup>14)</sup> 다른 말로 하면, 강단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로, 설교자는 교리를 개인에게로 친밀하게 몰아 붙여야 한다. 조직신학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멀고 일반적인 설명을 한다. 즉 Chalmer가 말한 “대량의 표본을 지닌 것으로서의” 교리인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 관점은 전적으로 다르다. “당신의 청중들을 각각 고립시키고 그를 당신에게 있는 문제들로 책임지웠고 특별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설교했음을 느끼게 하시오.”<sup>15)</sup> 각자가 그 자신의 양심에 진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의 청중들을 몰아부친 것과 같이 말이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행 2: 38).

###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사용

설교자는 교회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첫번째 대답은 아마 우리는 문서들을 주석에 대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종종 성경 주제의 훌륭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것은 특별히 10계명과 주기도문과 같은 성경의 주된 영역에 있어서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모든 기독교 전통의 요리문답들은 이와 같은 해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의 사용은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된 영역에 묶여있지 않다. 예를 들면 웨스트 민스터 전통 안에서 개종에 관한 설교는 소요리 문답의 제87답을 피해 갈 수 없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써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동일 문답의 제14답은 King James Version보다 요일 3: 4에서와 같은 죄에 대한 요한의 정의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14) Thamas Chalmers, *Select Works*, Vol.8(Edinburgh:Thamas Constable and Co., 1856), p.239.

15) Ibid., p.247.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King James Version은 단순히,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했다).

간단한 범위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다음과 같은 말보다 더 나은 신앙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소요리 문답 제86답), 이와 유사하게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18)라는 말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웨스트 민스터 성직자에 의해 주어진 대답보다 더 나은 주석을 우리는 어떻게 얻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써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들이어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고전 11:22-34에서 주의 만찬을 해설함으로써 제시한 실제적인 문제들과 싸우는 어떤 사람도 소요리 문답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데서 암시적인 안내를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줄 아는 새로운 각오가 자기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제 97답).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해설의 보조로서는 동일하게 유용하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제20장)에 대한 해설은 아주 장엄하고 갈 5:1과 같은 본문에 찬란한 빛을 던져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편으로는 권면하는 전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을 효력있게 만드는 일사이의 기술적인 과정을 조종하는 확신에 대한 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적이고 설교적인 관점에서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의 두드러진 부분은 아마도 칭의에 대한 장의 5항에서 발견될 것이다(제1장). 이것은 종종 급박한 목회적 문제인 것을 다룬다. 우리는 칭의 이후에 어떻게 죄를 범하는가? 신앙 고백은 훌륭한 안내를 준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 부터 타락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 아래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다.” 이 마지막 적은 감정이 타락한

자의 회복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발걸음을 묘사한다.

비 앵글로색슨 전통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 만약 우리가 요 16:7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설교한다면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의하여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보다 더 나은 설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둘째로, 머리되시는 그가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접붙이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늘에서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는 우리들에게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의 것을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내 주신다는 것이다.”(제 49문답).

동일한 요리 문답은 신앙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지식을 말할 뿐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적인 신뢰를 말한다. 그 복음은 다른 이에게 뿐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위한 순전한 은총에 의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신 것을 말한다.”

특별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을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들을 해설하는 것이 종종 유익할(필요하기 까지 할) 것이다. 일반적인 유통되는 이것들의 수가 분명히 이곳 저곳에서, 엄청나게 가지각색일 것이며 그것들을 비평하는 일의 정당성은 개인적인 목회적 판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호모 우시오스(homousios)라는 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귀를 땅에 대놓은 어떤 설교자도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질문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하늘로의 승천에 의해, 성도의 인내에 의해 “유아로 죽은 선택된 유아”에 의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능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무엇을 뜻 할 수 있는가?

더 때때로 우리의 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에서 결점들을 알아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웨스트 민스터 전통안에서 가장 커다란 오점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진술이다(소요리 문답 제2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 제4답의 신적 속성의 요약, 제31답의 유효한 부르심의 정의, 제35답의 성화의 정의(결정적 성화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를 취급할 때

단서가 표현 되어야 했다. 신앙 고백자체에 관한 한 설교자는 자신을 교황이 죄의 사람이라는 주석적인 진술(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교리에 덧붙여짐)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그와 같은 진술이 조용히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에 바로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것들이 반영하는 왜곡에 권위와 유통성을 주기 때문이며 만약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특별한 전통의 신학에 풍토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사람으로서의 교황에 대한 환상의 경우에 왜곡이 또한 종교적 편협의 불에 연료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해야 하는가? 가장 예외적인 환경에서만이다. 우리의 위임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문서를 해설한 것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표준적인 계시와 그 계시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흐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신조들이 무오할 때 조차도(예를 들면 사도신경에 대해 주장되어 질 수 있는것) 그것들의 비율과 균형과 주제의 과목은 성경의 그것일 수는 없다. 더구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그 존재하는 맥락—성경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도출되 교리를 제시하며 그러므로 실제적인 연관을 흐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두개의 마지막 점이 신조와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제시될 것이다. 하나는, 이러한 문서들은 기독교 세기들의 수집된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자극 아래서 그리고 그들의 매개 변수 안에서 설교하는 자는 누구나 그가 사적인 견해와 교회의 통일성과 평화를 위협하는 침입적인 교리를 설교하고 있지 않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설교 범위를 신앙 고백안에 두는 것은 그의 자유를 비성경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 자체가 보편적이거나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것일 때만이 옳다. 질서가 잘 잡혀진 교회에서는 신조에 의해서 부과된 유일한 제한이란 그것이 기본적인 교리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실 어떤 신앙 고백은 자유의 현장으로 보여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참지 못할 탈선을 쉽게 누그러뜨린다. 적당한 신학적 기준으로 설교자는 그의 세밀한 위치를 안다. 그의 신조가 말하는 곳에 그는 묶여 있다(만약 그가 신조가 틀렸다는 것을 보일 수 없다면). 그의 신조가 침묵하는 곳에서 그는 그 자신의 판단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예를 들면 그의 성직 수입식에 의해 웨스트 신앙고백서에만 따르도록 제한된 목사는 그의 양심이 자유의지론, 전천년설, 흡연, 혹은 아담의 죄의 직접적인 전가 등과 같은 문제들에 제한 받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동일한 신앙 고백에 위탁된 사람들은 Rutheford와 Boston, Candish 와

Crawford, Thownwell과 Hodge, Warfield와 Kuyper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표현하는 바와 같이 가장 맹렬하고 혹독하게 많은 존재거리들을 논쟁할 수 있다.

둘째로,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설교자를 효과적인 다양한 교리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제시자로 장식해 준다. 설교자는 “주된 것들에서 가장 좋아야”하며 이 “주된 것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충분히 연구한 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에 포함된 것들이어야 한다. 즉 그 교리들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동의하고 교회의 신중한 판단이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 교리인 것이다. Charles Hodge는 “당신이 생명적인 경건을 발견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당신은 타락과, 부패와 중생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신성을 발견한다. 나는 그와 같은 교리를 다 거부하는 개인이 경건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sup>16)</sup> 이런 교리들은 바로 신앙 고백적 신학의 핵심이다.

## 결 론

이 장에서 말은 것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이며 그 모든 교리들은 삼위일체로부터 행복에 넘친 환상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인데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배운자나 못배운자나 다에게 속한다. 우리는 어떤것도 뒷전에 둘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포조차도 우리의 태도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안주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위인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하는 확신으로부터 난 권위이다. 우리의 신학이 성경의 해설에 기초하고 있는 한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확신있게 말해야 한다. Barth는 루터의 위대한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나와 모든 사람은 그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자부해야 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교리는 죄가 있거나 비난할 만 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할때 주기도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데 그것은 죄를 짓거나 나쁜일을 하지 않

16) Salmond, *Princetoniana*, P.30.

기 때문이다.”<sup>17)</sup> 이것이 설교가 교의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한 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Barth를 다시 인용하면 교의학의 위대한 역할은 교회의 주일 설교를 비평하고 개정하는 것이다(설교는 교회의 최고의 임무이다). “인간이 어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할 때 교의학은 이것이 어떻게 내일 행해져야 하는지를 답한다.”<sup>18)</sup>

둘째, 계시의 가장 심오한 주제를 다룰 때 조차도 우리는 명백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소위 우리 교리의 깊이는 종종 우리 자신의 어둠에서 나온다. “어떤 바보도 철학적 안개속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Hamish Mackenzie는 쓴다. “단순성을 이루기에는 높은 수준의 지성과 마음의 위대한 청결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sup>19)</sup> 우리는 성경적 주제를 그 심오성의 이유에서 피할 권리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금도 열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교회의 규정된 교서인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를 해설하고 조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올바름과 분명성을 가지고 우리의 명령에 있어서 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스럽게 설교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논쟁적이고 변론적인 주제들을 다루어야 할 때 그렇다. 신학자들의 혐오(odium theologicum)는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설교는 우리가 구별된 자들을 사랑스럽게 취급함에 있어서 전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우리는 “사랑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엡 4:5). 그 사랑은 우리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17)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1(Greenwood, South Carolina:Attic Press, 1962), p.107.

18) *Ibid.*, p.86.

19) Hamish Mackenzie, *Preaching the Eternities*(Edinburgh:Saint Andrew Press, 1963), p.93.

## 기획논문

●성령으로의 세례

J. Van Bruggen

●성령으로의 세례문제에 관한 몇가지

일반적 소견

고재수

●고재수 교수의 “성령으로의 세례”에 관하여

차영배

●오순절 사건의 올바른 이해

안영복